



OECD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김수근

연구기간 / 2009.03-2009.10

등록번호 / 일반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9-72-1264

본 연구는 OECD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의 산업재해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 지표와 산업경제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OECD 회원국가의 산업재해통계 산출방법 조사, 산업재해 지표의 국가 간 비교와 제한점, OECD 회원국가의 산업재해 지표의 현황과 변화, 국가 간 사회보장유형별 산업재해 비교,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의 관련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표의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5년 동안의 사고사망 10만인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 터키, 멕시코 등의 국가가 10이상으로 높았고, 영국, 스웨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2미만

으로 낮았다. 사고사망 10만인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국가는 아일랜드였고, 5%이상 감소하는 국가는 호주, 슬로바키아,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등이었다.

독립된 산재보험형 국가들의 최근 5년간 사고사망 10만인율의 평균은 2.7-5.0, 산재보험의 통합형 국가들은 0.7-1.5, 산재보험의 사보험형 국가들은 4.0-7.3이었다.

사고사망 10만인율과 각각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연도를 보정하고 포아송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과는 음의 방향, 경제성장률과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과는 15-25세, 60세 이상에서는 양의 방향, 55세에서 59세이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전체), 고용율 및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과는 음의 방향, 실업률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시사하는 바는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 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재해 지표가 감소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안전기술이 보다 많이 채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경제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사망재해가 높은 것은 조세부담률과 공공사회 지출의 비중이 저조한 점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업종과 직종에서 산업재해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으

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산업재해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종에 대한 작업조건과 설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종과 직종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관계는 기존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사회경제 지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